# 문형태 Hyeongtae MOON (b. 1976-)

# 조선대학교 순수미술학부 서양화전공

#### | 개인전 |

2022 CHOCKABLOCK (가나아트, 서울)

2021 문형태전 (맥화랑, 부산)

2020 문형태전 (나인원 한남, 서울)

2020 Fantastic Man (선화랑, 서울)

2020 Be With (MUE, 서울)

2019 Gulliver (SH Art Project, 동경, 일본)

2019 Grimhilde (맥화랑, 부산)

2018 tagger (SH Art Project, 동경, 일본)

2018 (Spot) Apple (Printbakery, 삼청, 서울)

2017 Unicorn (선화랑, 서울)

2017 집으로 간다 (맥화랑, 부산)

2017 (Spot) LoveLetter 아동후원전 (Kami 김윤섭미술경영연구소, 서울)

2016 siamese (미르갤러리, 대구)

2016 Play Ground (맥화랑, 부산)

2016 The meditating submarine (진화랑, 서울)

2015 cats cradle (선화랑, 서울)

2015 A stone in my shoe (맥화랑, 부산)

2015 After Date (롯데갤러리, 부천, 경기)

2015 Stars (gallery C, 대구)

2014 After Date (롯데갤러리, 광복, 부산)

2014 True, lies of Life (에이블뉴욕, 첼시)

2014 Miss K (선화랑, 서울)

2014 Crown (청안갤러리, 서울)

2014 CAKE (갤러리나우, 서울)

2014 A Door (맥화랑, 부산)

2014 Mr. Geppetto (롯데갤러리, 중동, 부천)

2013 Mr.Geppetto (롯데갤러리, 영등포, 서울)

2013 Candy (갤러리나우, 서울)

2013 SAW A U,F.O (맥화랑, 부산)

2012 Jack in the box (갤러리 위, 서울)

2012 Rabbit Hole (맥화랑, 부산)

2011 Spaghetti (갤러리익, 네이쳐포엠, 서울)

2011 I see you (갤러리통큰, 서울)

2011 Bobby Dazzler (맥화랑, 부산)

그 외 다수.

## | 그룹전 및 아트페어 |

2023 화랑미술제 (COEX, 서울)

2021 화랑미술제 (COEX. 서울)

2020 Super Collection (슈페리어갤러리, 서울)

2020 ART BUSAN (벡스코, 부산)

2020 TOKYO ART FAIR (Tokyo International Forum, 일본)

2020 KIAF 한국국제아트페어 (온라인)

2020 10-100, 행복한그림전 (맥화랑, 부산)

2020 화랑미술제 (COEX, 서울)

2019 대구아트페어 (EXCO, 대구)

2019 KIAF 한국국제아트페어 (COEX, 서울)

2019 10-100, 행복한그림전 (맥화랑, 부산)

2019 ART BUSAN (벡스코, 부산)

2019 불혹, 미혹하다 (갤러리조은, 한남, 서울)

2019 TOKYO ART FAIR (Tokyo International Forum, 일본)

2019 화랑미술제 (COEX, 서울)

2018 대구아트페어 (엑스코, 대구)

2018 에딘버르 아트페어 (Edinburgh Corn Exchange, New Market Road, EH14 1RJ)

2018 문형태 하태임 2인전 (Studio Kii, 파주))

2018 10-100, 행복한그림전 (맥화랑, 부산)

2018 디어 마이 웨딩드레스 (서울미술관, 서울)

2018 TOKYO ART FAIR (Tokyo International Forum, 일본)

2018 Art Supermarket (가나아트센터, 인사동, 서울)

2018 ART BUSAN (벡스코, 부산)

2018 불혹,미혹하다 (갤러리조은, 한남, 서울)

2018 ART STAGE (Sands Expo and Convention Center, 싱가포르)

그 외 다수.

## | 작가설명 |

1976년 전라남도 해남 출생의 문형태작가는 광주 조선대학교 순수미술학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했다.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벌기 위해 시작했던 웹디자인, 그래픽디자인, 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은 본격적인 작업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2008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전업작가로 활동해온 문형태작가는 매년 서너차례의 개인전을 열며 2009년 SOAF 10대작가, 2011년 LA Art Show 어메이징 아티스트로 선정된 바 있다. 지금은 국내 뿐만 아니라 타이페이,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폴 등해외 전시도 활발히 하며 큰 반응을 얻고 있다. COVID19가 시작되기 전에는 미국 마이애미(Miami)에서 진행되었던 대형 아트페어인 CONTEXT ART MIAMI에서 맥화랑을 통해 개인부스로 Solo Show를 선보이기도 했다.

일상의 단면을 다채로운 색감과 독특한 형태로 표현해내는 작가의 회회작업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남들보다 굴곡이 심한 삶을 살아온 까닭인지 작품 속에 함축하는 메시지가 강렬하다. 어린시절 작업을 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가질수 없었던 기억과 가까웠던 친척 어른의 죽음,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겪는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애증의 관계는 작가가 인생, 예술, 죽음과 같은 커다란 삶의 명제에 대하여일찍이 폭넓은 사유를 하게 만들었다. 초창기 문형태작가의 작품은 어둡고 깊이 있는색감과 가슴 짠해지는 작업들이 주를 이뤘고, 근래에는 연인, 가족과 같은 주제로 밝고 따뜻한 느낌의 작업을 이어오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캔버스를 마주하고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는 문형태작가는 작가로서 한층 성숙된 면모를 보인다. 전시장에 걸린 작품들은 작가 본인의 이야기에서 출발한 작 업들이지만 관람객은 그 작품을 통해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 맥화랑 전시서문 중 발췌 (2021)